

■ 평가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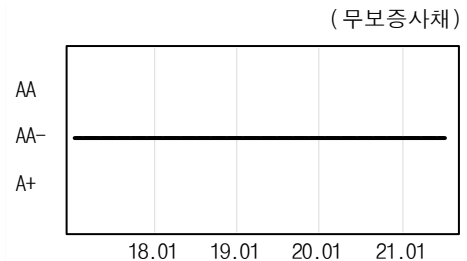
김미희 수석연구원
02-368-5418
mhkim@korearatings.com

최주욱 평가5실
평가전문위원
02-368-5303
jwchoi@korearatings.com

■ 평가 개요

제15-3회 외 무보증사채	AA-/안정적
평가종류	정기평가
후순위사채	NR
기업어음	NR

■ 등급 추이



■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배, %)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03)
매출액	8,828	10,250	9,331	7,570	2,728
EBIT(영업이익)	1,135	1,274	1,325	931	355
EBITDA	1,803	2,032	2,046	1,636	549
총자산	21,795	20,492	21,565	23,935	23,343
총차입금	12,812	11,509	12,062	14,037	13,037
순차입금	10,806	10,592	10,855	10,503	9,918
EBIT/매출액(영업이익률)	12.9	12.4	14.2	12.3	13.0
EBITDA마진	20.4	19.8	21.9	21.6	20.1
EBITDA/금융비용	5.1	6.4	6.7	5.2	7.4
순차입금/EBITDA	6.0	5.2	5.3	6.4	4.5
부채비율	201.4	164.3	156.3	175.9	167.0
차입금의존도	58.8	56.2	55.9	58.6	55.8
적용재무제표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주 1. K-IFRS기반 표준재무지표로 조정 재구성한 수치임
2. EBITDA = EBIT(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평정요지

한국기업평가는 지에스이피에스(주)(이하 '동사')의 제 15-3 회 외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 주요 평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 다각화된 발전포트폴리오, 대규모 설비용량 등에 기반하여 사업안정성 우수
- 투자부담 지속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 재무안정성 점진적 개선 전망

상기 신용등급은 자체신용도와 동일하다.

▶ 회사 개요

충남 당진에 총 2,616MW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민자발전사이다. 1996년 '발전 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최초 LNG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되어 구 LG에너지로 설립되었고, 2005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3월 말 기준 (주)GS가 최대주주로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평정논거(Key Rating Rationale)**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대규모 설비용량 등에 기반하여 사업안정성이 우수하다.

LNG 복합화력 4 기, 바이오매스 2 기 등을 포함하여 총 2,616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상위권 민자발전사이다. 대규모 용량요금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발전소(2015 년, 2020 년)와 직도입 LNG 발전소(2017 년)를 순차적으로 준공하면서 사업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투자부담 지속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였다.

2020 년에는 코로나 19 로 인한 전력수요 위축과 유가 급락에 따른 SMP 하락으로 매출과 이익규모가 감소하였지만, 다각화된 수익구조, 견조한 용량요금 기반, 잉여 탄소배출권 판매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영업수익성을 시현하였다. 2018 년 이후 바이오매스 2 호기 건설로 확대된 투자부담이 지속되었으나, 우수한 현금창출능력에 기반하여 1 조원 내외의 순차입금 규모를 유지하였다. 2020 년 순차입금/EBITDA 6.4 배, EBITDA/금융비용 5.2 배, 2021 년 3 월 말 부채비율 167.0%, 차입금의존도 55.8%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안정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SMP 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바이오매스 2 호기(105MW)의 영업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외형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복합 1 호기의 정비 및 설비 개선, 바이오매스 2 호기 관련 잔여 투자분 집행 등으로 2021 년에는 확대된 투자규모를 유지하겠지만, 이후에는 투자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규모 용량요금 수익기반, 바이오매스 2 호기의 가동 및 당진복합 1 호기의 연료조달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창출능력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면서 점차 재무안정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 **등급전망 - 안정적(Stable)**

우수한 수익창출능력과 투자부담 완화를 바탕으로 점차 재무안정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동사 투자계획 및 배당정책, 원가경쟁력 수준, 주요 정책 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 **등급변동요인**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순차입금/EBITDA 2.5배 이하 유지

반면, 아래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순차입금/EBITDA 8.0배 초과 지속

별도 기준	연도별			3개년 평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순차입금/EBITDA(배)	5.2	5.3	6.4	6.6	5.5	5.6

■ 주요 평정요인(Key Rating Factors)

▣ 사업 요인

민자발전사업자로서 우수한 사업안정성 보유

충청남도 당진에서 LNG 복합화력 4 기(당진복합 1~4 호, 총 2,406MW), 바이오매스 2 기(총 210MW)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자이다. 당진복합 1 호기의 PPA 계약이 2021 년 3 월 말 종료됨에 따라, LNG 복합화력 1~4 호기 모두 CBP(Cost Based Pool) 체제 하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1~3 호기는 KOGAS 로부터 LNG 를 조달하고 있으며, 4 호기는 LNG 를 직도입하고 있다. 2015 년 바이오매스 1 호기에 이어, 2020 년 12 월 바이오매스 2 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2009 년부터 운영해 왔던 연료전지는 노후화되어 2020 년 운영을 중단하였다.

전력산업은 국가 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 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 공공성과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요구되어 자본집약적 성격을 띄며, 정부의 직간접 규제에 의해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핵심 제품의 필수재 성격과 정부 규제산업 특성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안정성이 우수하다.

【발전설비 현황 (2021 년 3 월 말)】

구분	당진복합 1호	당진복합 2호	당진복합 3호	당진복합 4호	바이오매스 1호	바이오매스 2호	태양광	합계
가동시기	2001.04	2008.03	2013.08	2017.04	2015.08	2020.12	2014.11	
연료원	LNG (KOGAS)	LNG (KOGAS)	LNG (KOGAS)	LNG (직도입)	목질계 바이오	목질계 바이오	신재생	
용량(MW)	538	550	415	903	105	105	0.3	2,616.3
가스터빈	350	360	275	588	-	-		
스팀터빈	188	190	140	315	105	105		

자료: 분기보고서 등

다각화된 수익구조, 용량요금 기반 등으로 우수한 영업수익성 시현

2017~2018 년에는 용량요금 인상, LNG 직도입으로 원가경쟁력을 갖춘 당진복합 4 호기의 가동 등에 힘입어 외형과 수익성이 공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9 년에는 전력수요 둔화에 따른 이용률 하락과 SMP 약세로 전력량요금이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인 용량요금 수입 및 배출권 판매수익 확대를 바탕으로 영업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졌다.

2020 년에는 코로나 19 로 인한 전력수요 위축과 유가 급락에 따른 SMP 하락으로 인해 전력량요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0 년 말 바이오매스 2 호기의 상업운전 개시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감소 및 판매단가 하락세 지속으로 REC 매출도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20 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9% 역성장한 7,570 억원에 머물렀다. 인프라마진 감소로 EBITDA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다각화된 수익구조, 견조한 용량요금 기반, 잉여 탄소배출권 판매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영업수익성을 시현하였다.

2021 년 1 분기에는 SMP 가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북당진-고덕 HVDC 1 단계 준공에 따른 계통여건 개선 및 전력수요 회복으로 전력판매량이 확대되었고, 전년 말 준공된 바이오매스 2 호기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영업실적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영업실적 추이 (별도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Q	21.1Q
용량요금	1,005	1,703	1,887	1,929	1,903	601	572
전력량요금	4,299	6,832	8,226	7,343	5,683	1,640	2,242
REC매출	684	761	695	595	528	57	103
합계	5,988	9,296	10,808	9,867	8,114	2,298	2,918
매출액	5,989	8,828	10,250	9,331	7,570	2,127	2,728
EBITDA	1,209	1,803	2,032	2,046	1,636	516	549
EBITDA마진	20.2%	20.4%	19.8%	21.9%	21.6%	24.3%	20.1%
EBITDA/MW(백만원)	75.0	78.8	80.9	81.4	64.9	82.1	84.0

주: 용량요금, 전력량요금, REC매출의 합계액에는 감사보고서상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된 제약비발전수익(COFF), 금융리스 채권 회수금액이 포함됨에 따라 실제 매출액과 차이 발생

자료: 동사 제시,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재무 요인

투자부담 지속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2011~2016 년 발전소 신·증설 투자 과정에서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었지만, 2017 년 당진복합 4 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로 영업현금창출능력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2018 년 이후 바이오매스 2 호기 건설로 확대된 투자부담이 지속되었으나, 우수한 현금창출능력에 기반하여 1 조원 내외의 순차입금 규모를 유지하였다. 다만 유동성 확보 목적의 현금성자산 증가로 2020 년 말 총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2 천억원가량 증가하였고,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레버리지 지표도 상승하였다.

2021 년 1 분기에는 전력판매량 증가, 바이오매스 2 호기의 가동 본격화 등으로 영업 현금흐름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의 이익감소로 배당금 지급이 줄어든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잉여현금흐름이 확대되었다.

지속된 투자부담에도 불구하고, 2020 년 순차입금/EBITDA 6.4 배, EBITDA/금융비용 5.2 배, 2021 년 3 월 말 부채비율 167.0%, 차입금의존도 55.8%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재무지표 추이 (별도기준)】

(단위: 억원, 배, %)

구분	2016(1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0(03)	2021(03)
OCF	1,042	1,870	1,749	1,795	1,244	481	586
운전자본투자 등	282	-454	76	235	-382	-355	-439
NCF	759	2,324	1,674	1,560	1,626	836	1,026
자본적지출	1,677	1,201	752	1,333	886	257	226
배당금지급	224	224	482	405	424	424	274
FCF	-1,142	899	440	-177	316	155	525
총차입금	12,317	12,812	11,509	12,062	14,037	12,854	13,037
순차입금	11,701	10,806	10,592	10,855	10,503	10,651	9,918
EBITDA/금융비용	3.3	5.1	6.4	6.7	5.2	8.2	7.4
순차입금/EBITDA	9.7	6.0	5.2	5.3	6.4	5.2	4.5
부채비율	206.0	201.4	164.3	156.3	175.9	169.4	167.0
차입금의존도	62.0	58.8	56.2	55.9	58.6	57.4	55.8

자료: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향후 전망**

외형 회복, 우수한 이익창출능력 유지 전망

전력수요 저성장과 신규 기저발전기의 진입으로 2021 년에도 비우호적인 전력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반등으로 SMP 가 상승하고, 2020 년 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이오매스 2 호기(105MW)의 영업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외형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1 년 3 월 말 PPA 가 종료된 당진복합 1 호기의 경우 2022 년 이후 KOGAS 개별요금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원가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0 년 북당진-고덕 HVDC 의 1 단계 공사 준공으로 당진복합 3 호기의 이용률이 상승한 데 이어, 2021 년 말 준공을 목표로 2 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당진복합 2 호기의 계통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급전 도입과 이용률 상승으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은 줄어들 것이나, 안정적인 용량요금 수입과 다각화된 발전포트폴리오에 기반하여 우수한 이익창출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무안정성 점진적 개선 전망

2021 년에는 당진복합 1 호기의 정비 및 설비 개선, 바이오매스 2 호기 관련 잔여 투자분 집행 등으로 확대된 투자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가 일 단락됨에 따라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규모 용량요금 수익기반, 바이오매스 2 호기의 가동 및 당진복합 1 호기의 연료조달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창출능력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면서 점차 재무안정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 **계열 요인**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 미반영

지주사인 (주)GS 의 사업자회사 중 하나로 계열 내 사업적 비중은 비교적 낮지만, 계열 주력사업인 에너지업종과의 높은 통합도, ‘GS’ 브랜드 공유 등을 감안할 때 계열의 지원의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동사의 자체신용도와 계열 신용도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유사시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 **유동성 분석**

유동성 대응능력 우수

2021 년 3 월 말 별도기준 1 년 이내 만기도래 차입금은 3,305 억원으로 총차입금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점 보유 현금성자산이 3,162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2020 년 연간 OCF 1,286 억원), 대규모 유형자산에 기반한 풍부한 담보여력, GS 계열의 우수한 대외 신인도에 기반한 자본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 대응능력이 우수한 수준이다.

【차입금 만기구조】

(단위: 억원, %)

구분	2021.03 잔액	기간별 만기도래 금액			
		1년	2년	3년	이후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15	5	5	4	
회사채	13,000	3,300	2,400	1,700	5,600
총차입금(B/S)	13,015	3,305	2,405	1,704	5,600
(비중)	100.0%	25.4%	18.5%	13.1%	43.0%

주: 사채할인발행차금 반영 전
자료: 분기검토보고서, 동사제시

■ 민자발전업 신용평가방법론 적용 결과

구분		AAA	AA	A	BBB	BB	B
사업 항목	정부정책		○				
	수급상황 우호도			○			
	사업경쟁력	○					
	설비용량		○				
재무 항목	수익성			○			
	순차입금/EBITDA				○		
	EBITDA/금융비용			○			
	부채비율			○			
	재무정책 및 유통성		○				
모델등급			○				
기타 평가요소		-		0			+
외부지원가능성				0			

- 주) 1. ○ 표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의미
 2. 외부지원가능성은 유사시 정부 또는 계열로부터의 지원을 의미

본 평가는 당사의 공시된 민자발전업 신용평가방법론(2021.03.25), 신용평가일반론(2021.03.25), 계열 신용평가방법론(2019.10.18)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 www.rating.co.kr 의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평가 시 모델등급은 평균평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적용사유: 업종 및 개별기업 특성의 반영 필요)

본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과 상이한 신용평가방법 등을 적용하거나, 신용평가방법 등을 변경 적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소속국가의 법적·제도적 규제환경(외환통제, 출자·보증의 제한·금지, 법적지위 변경 등)은 중요한 고려항목 중 하나이나 이를 평가시점에 사전적으로 신용등급에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역외기업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측정보 관련 유의사항>

본문 내 전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평가시점에 있어 당사의 합리적인 분석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예측정보이며, 이는 분석대상업체의 핵심지표 관련 당사의 전망에 기초한 영업손익 추정과 분석대상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지표의 변화 폭이 당초의 예상범위를 크게 이탈하고, 이러한 추세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반영한 Credit 검토를 토대로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는 수급요인이나 환율, 금리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포함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 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정보는 상기 <유의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제44조 제6항·제4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며, 평가의견의 일부입니다.

【장기 채무 신용등급 정의 및 회사채 부도율】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연간 부도율(%)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공식	광의	공식	광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0.00	0.00	0.00	0.00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0.00	0.00	0.00	0.00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0.00	0.00	0.28	1.05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0.00	0.00	1.56	5.21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0.00	0.00	8.25	11.65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7.69	11.54	15.71	17.91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NA	NA	14.84	27.14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A	NA	33.33	100.00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NA	NA	37.68	56.66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 주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 주3: 구조화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구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를 부기함.
- 주4: 공식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의해 산정된 부도율임.
- 주5: 광의 부도율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제9호에 의해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을 포함하여 산정한 부도율임.
- 주6: 연간 부도율은 신용평가실적서의 직전년도 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하고,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은 평균누적부도율표의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함.
- 주7: 연간 부도율은 2020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20년 기준임.

- 당사가 본 건 신용평가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현황 등 입니다.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21.06.16이고, 평가종료일은 2021.07.08입니다.
- 최근 2년간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계약 건수 및 총액은 각각 0건, 9백만원(경기평가 포함)입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일 현재 수행중인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은 없습니다. 또한 요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수수료 비중은 신용평가 수수료 총액의 1%에 해당합니다.
- 신용평가일 기준 2년 이내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금액은 각각 0건, 35백만원(기간매출 포함)입니다. 또한 요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비평가수수료 비중은 비평가 수수료 총액의 2%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평가일 현재 수행중인 비평가용역은 없습니다.

Copyright© 2021 :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599.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